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의예과	파견대학	Czech University of Life Sciences Prague
파견기간	2025년 1학기	파견국가	Czech Republic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현지대학에 지원할 때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 서류 목록과 각 서류 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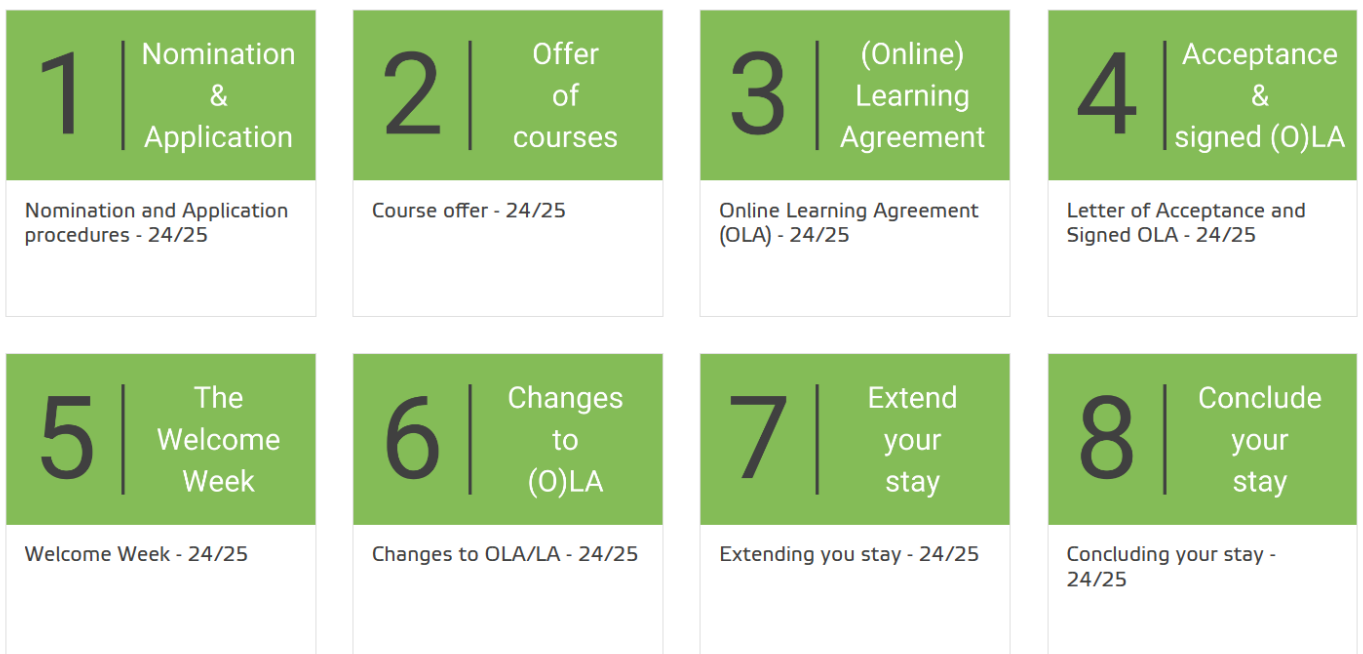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Application Form / Learning Agreement(LA)

Application Form은 간단합니다. CZU에서 보내준 파일에 서명을 해서 회신하시면 됩니다.

Learning Agreement는 예비 수강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막상 개강 후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제시하는 수강목록도 싹 바뀌고 출국 전 LA를 어떻게 작성했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아서 부담 없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은 이메일로 상세히 안내 받으실 겁니다. 외에도 CZU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든 준비 절차가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 현지대학의 신청 절차 및 전체적인 진행 일정

Individual steps of your stay



1. CZU로부터 이메일로 합격 서류 받기
2. CZU 코디네이터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때 모든 절차를 자세히 안내 받습니다)
3. Application Form / Learning Agreement(LA) 제출
4. 기숙사 신청(비자 신청에 필요한 거주지 입증 서류 수령 위해 서두르기)
5. 입학허가서 / 거주지 입증 서류 수령
6. 비자 발급
7. 프라하 도착 후 기숙사 체크인
8. 학교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

- 신청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

CZU와 컨택하는 데에는 워낙 안내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비자 신청을 위해 기숙사 신청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싶었는데, CZU의 학생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교내와 교외 2군데가 있고 이때 각 기숙사의 담당자분들이 달라 소통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내 기숙사에 배정 되었다가 교외 기숙사로 변경하려는 제 경우에서만 복잡한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는 뒤에 캠퍼스 시설 부분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습니다.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 출국 전 준비한 내용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비자 발급 과정, 소요 시간, 유의할 점

교환학생 준비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꽤나 악명 높은 체코 비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이나 인터넷에 친절하고 상세한 정보글들이 많아 저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정보를 찾아보시고 마지막에는 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실한 정보 검증 을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류 하나가 잘못 되어도 다시 인터뷰 날짜를 잡고 또 다시 기다리고 하며 시간적 지체가 크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대비하셔서 첫 시도에 비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출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LONG-TERM APPOINTMENT REQUEST - STUDY - KIM [REDACTED] 받은편지함 x



seoul.visa에게 ▾

2024년 11월 8일 (금) 오전 8:30

- Name (성명): [REDACTED]
- Nationality (국적): Republic of Korea
- Purpose of the long-term visa/stay (체류 목적): STUDY
- Phone contact and e-mail address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010-[REDACTED]@gmail.com
- Date of departure(출국일): 2025/01/23
- Address in Korea(현주소):
[REDACTED] Republic of Korea

첨부파일 1개 • Gmail에서 스캔함



1. 파견교로부터 입학 허가서 원본을 받자마자 주한체코대사관에 비자 신청 메일 보내기

2. 대사관으로부터 가능한 면접 시간대를 안내 받으면 그 중 가능한 시간대를 골라 답신
3. 면접 일정 확정 메일 받은 후 필요한 서류 준비(이게 메인)
4. 서류 꼼꼼히 챙겨 서울에 있는 체코대사관에서 면접 및 비자 비용 현장결제
5. 비자 승인 메일 받은 후 수령일자 확인한 뒤 다시 대사관에 방문해 비자 수령

소요 시간은 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11월 8일, 비자 신청 메일 발송
2. 2024년 11월 11일, 확인했다며 19일에 면접 오라는 답신받음
3. 생각보다 바로 잡힌 면접 일정에 정신없이 서류 준비 시작.. 미리미리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4. 2024년 11월 19일, 면접
5. 2024년 12월 23일, 승인 메일 받은 후 / 2025년 1월 2일 비자 현장 수령

저는 면접 일자가 바로 잡혀 비교적 빠르게 비자 수령을 한 편입니다! 다들 비자만큼은 부지런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시기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지만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도 적어드겠습니다.

- [x] 비자신청서
 - [x] 탭으로 미리 작성
 - [x] 실수 대비 여분 더 많이 인쇄
 - [x] 작성(파란펜,대문자)
- [x] 여권용 사진 2장 (인쇄)
 - [x] 1)신청서에 부착
 - [x] 2)뒷면에 영문명, 생년월일(일,월,년 순) 써서 제출용
- [x] 여권(서명 필수)
- [x] 여권사본
 - [x] 스캔 후 파일 만들기
 - [x] 인쇄본
- [x] 은행 잔고 증명서(영문)
- [x] 해당 계좌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서(영문)
- [x] 해당 체크카드 사본(앞뒷면 한 장에, 서명)
- [x] 실물카드
- [x] 범죄경력회보서
 - [x] 발급
 - [x] pdf 인쇄
- [x] 아포스티유
 - [x] 발급
 - [x] pdf인쇄(문서번호 확인)
- [x] 위 두 서류 체코어 번역본
 - [x] 모든나라번역(번역업체명) 맡기기
- [x] 입학허가서 원본
- [x] 기숙사확인서 원본

● 항공권 예약, 현지 도착 후 숙소까지의 이동 방법

항공권의 경우, 저는 대한항공 직항 이용했습니다. 고려했던 다른 선택지로는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등이 있었는데 학생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할인, 수하물 추가 무료) 때문이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학생 혜택이 있는 항공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설날 당일 대한항공 직항편 가격이 경유하는 다른 편들과 큰 차이 없어 직항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는 항공사 선택보다도 편도를 끊을지 왕복을 끊을지가 더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는 편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왕복으로 끊는 게 훨씬 저렴해 저도 왕복을 택했었지만 결국 일정 변경을 하면서 3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내다보면 날짜 일정 뿐 아니라 out 공항을 프라하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고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출국 전에 귀국 날짜를 정하는 것도 온근 골머리를 앓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제 주변 교환학생 친구들을 봐도 귀국을 하고 싶은 타이밍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지내보면서 열어두고 결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공항 도착 후 숙소까지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제 경우, 프라하로 오기 전 미리 연결되었던 현지 버디 친구의 도움 덕에 가능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친구 덕에 많은 짐을 들고도 대중교통으로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비행 후 낯선 곳에 뚝 떨어지신 만큼 그냥 마음 편하게 택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버나 볼트 앱 미리 깔고 회원가입, 결제수단 등록 하시는 게 바로 이용하시기에 편리합니다.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생필품 추천

뻘하지 않은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허브솔트, 멀티쿠커, 냉동식품 밀봉 집계!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어떻게 다 구해본다지만 이 셋은 꼭 한국에서 챙기시길 바라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전기장판도 꼭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져온 짐만 65kg가 넘는데 그 중 가장 잘 챙겼다 싶은 텀은 무조건 전기장판입니다... 캐리어에 짐 테트리스 하다보면 겨울만 잠깐 쓸 텐데 이 큰 걸 굳이??? 싶으실 수 있는데 저는 6월 초까지도 매일 켜두고 살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5월까지 쓰는 쓰더라고요. 한국과는 체감 날씨가 꽤 다릅니다.

-교통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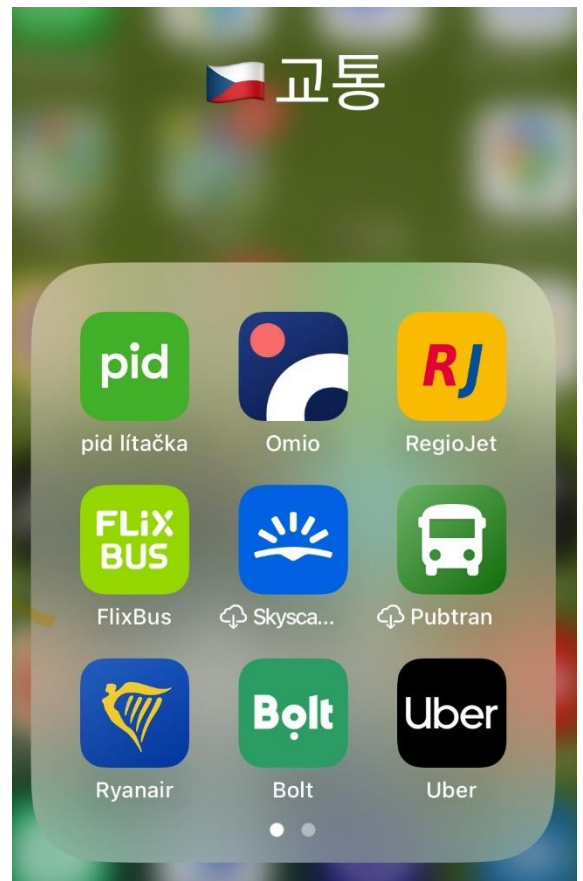
Pid litacka

프라하 교통권은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티켓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국과 다르게 티켓 하나로 버스, 지하철, 트램 등등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합니다. 체코 현지 대학 학생증이 나오기 전에는 1일권이나 3일권 이용하시고, 발급 후에는 학생 pass ticket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교통 앱으로는 구글맵, flixbus(유럽 전역 버스), omio(버스, 기차 한 번에 비교 가능한 앱), regiojet(버스, 기차), bolt, uber(택시) 등이 있습니다.

-통신

체코 교환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신사는 vodafone입니다. 학생 무제한 요금제에 3가지 플랜이 있고 저는 중간 단계를 월 4만



원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오셔서 현장 지점 방문으로 차차 해결하시면 될 일이고, 출국 전 준비하실 부분은 한국 통신사 정지, 도착 직후 통신 해결입니다. 저는 도깨비로밍 esim 데이터 무제한 3일권을 미리 구매해 도착 직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었습니다. esim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수업 정보 (분량: 1장)

-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수강한 과목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 및 수업 분위기 (예: 수업별 학생 수, 발표·과제 중심 등)

Course Unit Code ⁽¹⁾	Title of the course unit	DCU ⁽²⁾	Volume and Examination ⁽³⁾	Local grade ⁽⁴⁾	ECTS grade ⁽⁵⁾	ECTS credits ⁽⁶⁾	Entry Date
ACA07E	Organic Chemistry	1S	2/2 C+Ex [h/w]	Excellent	A	5	30/04/2025
ERET7E	Theory of Management	1S	2/1 C+Ex [h/w]	Very good	B	5	31/03/2025
ERE25E	Human Resource Management	1S	2/1 C+Ex [h/w]	Very good	B	5	15/04/2025
EUE50E	Trade and Commerce	1S	2/1 C+Ex [h/w]	Excellent	A	5	22/04/2025
EXEA2E	English for Debate and negotiation purposes	1S	0/2 C+Ex [h/w]	Excellent	A	5	02/05/2025
IAI012E	General Epizootology	1S	2/2 C+Ex [h/w]	Excellent	A	5	16/04/2025

Total 30 ECTS credits

(1) (2) (3) (4) (5) (6) see explanation

저는 강의목록을 훑어보니 흥미로운 수업이 많아 최대학점인 18학점을 이수했습니다. 유럽식의 학점을 한국식으로 변환할 때 5ECTS가 곧 3학점이 됩니다. 즉 저는 30ECTS를 이수했습니다. 또 CZU에서는 교환학생으로서 main faculty의 수업을 50% 이상 들으면 다른 학과 수업도 수강이 가능해 여러 학과에서 흥미로워 보이는 강의를 골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팁은, 개강 전 한국에서 준비하는 수강계획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주어지는 강의목록과 막상 현지에서 수강신청 할 때 주어지는 강의목록도 다릅니다. 오셔서 OT주간, 즉 개강 첫 주간에 오리엔테이션 설명회나 메일로 오는 안내를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수강했던 6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Weekly 수업으로 2월부터 5월 초까지 매주 수업이 있었음. 유기화학을 또 깊게 배워본 적이 없어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교수님께서도 기초 수준이라고 했음. 그리고 생명학과의 수업으로 열린 유기화학이었어서 그런지, 교수님께서도 첫 수업부터 생명학도인 너희에게 화학을 어렵게 가르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음. 격주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함. 실험은 고등학교 실험동아리 수준으로 아주 쉬운 편에 속했음. 매주 추가 점수를 주는 과제가 있지만 필수 아님. 학기 중 3번 정도 온라인으로 치루는 시험이 있음.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형식으로 답변하는 게 중요한 듯.

2. General Epizootology

동물전염병학. Block + Weekly 형태 수업으로, 한 달 간 매주 월요일, 다섯번 정규 수업이 있고 추가로 실험과 현장실습, 견학 등의 출석이 필요함. 면역학에 관심이 있고 수강계획서의 실험들과 현장실습, 견학 등이 아주 흥미로워보여서 bachelor가 아닌 master 수업이었지만 욕심내 수강해봄. 실제로 나 빼고 다른 타국 학생들은 다들 master 학기였고 소규모 수업이었음. 동물학과 수업이라 내용이 너무 동물에만 치중 되어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면역학 기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후 동물에 적용해보는 식. 계획서대로

격주로 모든 실험이 진행되지는 않아 아쉬웠지만 DNA PCR 실험과 도시 외곽으로 나가 직접 진드기를 채집하는 실습은 흥미로웠음. 특히 의료센터 견학을 기대했었는데, 생각했던 의료센터는 아니었지만 진드기를 비롯한 여러 병원체나 각국에서 수집해온 곤충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이었음. 체코인이신 교수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었는데 시험 방식이 한국에서는 해보지 않은 oral test여서 걱정이 컸음. 교수님과 1:1로 면담을 잡고 대화하듯이 질답을 주고 받는 시험 형식이었는데, 학문적인 대화를 1:1로 그것도 영어로 한다는 게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지만, 영어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던 교수님 말씀처럼 그저 수업 열심히 듣고 한국 대학에서 시험 준비하듯 수업자료 공부해가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음.

3. English for Debate and Negotiation Purposes

과목명 그대로 토론과 협상에 있어 쓰일만한 영어를 배움. 그렇지만 영어 회화 공부라기보다는 협상과 토론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느낌에 가까웠음. Weekly 수업으로 2월부터 4월 말까지 매주 한 번 수업이 있었고 마지막 수업에 대면고사를 한 번 치름. 전 문항 서술형으로, 시험 전 미리 질문을 알려주셨는데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미리 보고 간 수업 자료 토대로 작성하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음.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이해한대로 쓰는 것을 강조하셨어서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쓰기보다 나의 언어로 다시 paraphrasing하는 편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음.

4. Trade and Commerce

1부와 2부로 나뉘어 이루어지는 교환학생 전용 Block 수업. 국제적인 상업에 대해 폭 넓게 다루는 강의. 1부는 대면수업으로 거의 매 수업 현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고 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름. 시험 전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출제. 2부는 온라인으로 영상 시청 후 에세이 과제. 타국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은 수업이었음. 교환학생 전용 수업인 만큼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교류에 열려있고, 매 수업 있던 과제 중에는 두 명씩이나 팀플로 하는 단위가 많았어서 기회도 많은 편.

5.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하루에 5시간씩 한 주 동안 듣는 Block 형태 수업으로 교환학생 전용이었음. 내용은 내가 manager로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보다는 일을 구하는 입장에서 도움 될만한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다룸. 평가는 마지막 수업에 치르는 대면고사로 이루어지며, 수업자료를 꼼꼼히 공부해야 풀 수 있는 수준의 객관식, 서술형 문제들이었음. 교수님께서 출석을 보지 않아서 후반부에는 정말 소규모로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그만큼 타국 친구들과 조금 더 친밀한 교류를 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수업.

6. Theory of Management

경영학의 아주 기초를 배우는 이론형 수업. Human Resource Management 강의와 같은 교수님이 진행하셨고 이 또한 하루 5시간씩 한 주 동안 듣는 Block 형태 수업으로 교환학생 전용이었음. 평가 방식과 시험 출제 방식도 위와 비슷. 다만 수업이 밤 9시에 끝나는데, 겨울인 3월 첫 주에 열린 수업이라 밤에 수업 끝나고 외부 기숙사 가는 길이 꽤나 힘들었던 기억.

● 수업 난이도, 어학 능력 요구 수준

교환학생 전용 수업과 전용이 아닌 일반 수업의 차이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교환 전용은 사실 조금 편한 표현을 쓰자면,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개 그런 것이고 교수님 바이 교수님으로 5분만 지각을 해도 출석 점수를 감점하시는 등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수업은 확실히 수업이나 실습에 높은 참여도가 요구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고 한국 대학에서 교양 강의를 깊게 배우는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제 경우 타 전공으로 일반 수업을 들어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수강한 강의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미국인 교수님이 아닌 이상 말씀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교환학생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토익 점수 넘었다면 큰 문제 없이 수강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 교수님은 수업 전체를 다 따라가려면 확실히 훨씬 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긴 했습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 학교 안팎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기숙사

CZU의 학생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2곳으로, 교내에 위치한 JIH 기숙사와 외부에 위치한 WEST 기숙사가 있습니다. 항상 학생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JIH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로부터 제안 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제가 파견된 2025-1학기에는 저희 한림대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었고, 항상 자리가 있던 건국대 학생들이 메일을 받지 못하는 등 명확한 선발 기준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는 JIH 기숙사 제안 메일을 받았음에도 외부에 위치한 WEST 기숙사를 선택했습니다. 제게 있어 내부 기숙사의 장점으로 보이는 것은 딱 위치 하나였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미비한 부엌 등 단점이 더 컸습니다. 학교 내부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장점도, 시내와 먼 것을 고려하면 제게는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WEST에서 학교까지는 약 45분 정도로 물론 매일 통학하기에 힘들기도 했지만 창밖으로 아름다운 프라하를 구경하고 있다면 체감상 그리 길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WEST 기숙사를 선택한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다보면 마트에서 장을 봐서 해먹는 게 외식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요리를 자주 하시게 될 텐데 제대로 된 주방 없이는 생활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또 WEST에는 층마다 공용주방을 사용하는데 이곳에서 같은 층 타국 친구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뒤에 후술하겠지만 ESN이라는 교환학생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면 생각보다 타국 학생들과의 접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교환학생으로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문화적 교류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더욱 더 공용주방과 스터디룸, 로비 등등 활성화된 공용공간이 있는 WEST를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선택에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제가 그랬듯 네이버 블로그 기숙사 후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

학교 안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체코어를 하시는 게 아닌 이상 도서관은 독서가 아닌 공부나 과제를 위한 조용한 공간으로써 이용하실 텐데, 도서관은 쾌적하나 자리가 많은 편은 아니라 도서관보다도 교내의 학과 건물들을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학과 수업을 들으며 거의 모든 학과 건물을 이용해봤는데 건물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도 재미있습니다. 꼭 해당 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출입이 가능하니 여러 학과 건물 이용해보시고 잘 맞는 공간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특히 경영학과 건물인 빨간색 빌딩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CZU는 학과마다 건물 색깔이 구별되어 있어 찾기도 쉽습니다.



-학생식당

교내에 Menza라는 건물이 학생식당입니다. 매일 4가지의 메뉴 중 선택 가능하고 메뉴마다 다르지만 보통 5-60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맛과 양이 좋은 편은 아니라 자주 가진 않았고 부득이하게 수업 사이 끼니를 챙겨야 할 때만 이용했습니다. 또 2000

원 정도만 더 보태면 학교 입구에 있는 케밥집에서 아주 크고 맛있는 케밥을 먹을 수 있었어서 멘자에 갈 바에는 케밥을 사먹곤 했습니다.

● 필드트립,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한 활동

타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원하신다면 ESN이라는



교환학생 단체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특히 학기 초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필드트립, 펍퀴즈, 요가클래스 등등 정말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리니 여러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월쯤으로 넘어가면 열리는 행사도 적어질 뿐더러 이미 서로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참여율도 저조한 편입니다. 학기 초 유럽에 적응하라, 첫 수업 나가라 바쁘시겠지만 다 때가 있는 활동들이니 교류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학기 초 바쁘게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은 행사가 끝났다고 바로 귀가하시기보다, 여기저기서 서로 눈치 보면서 펍 가자는 무리가 형성되곤 하니 그때를 잡으면 친한 친구를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 학교 주변 맛집, 쇼핑 장소, 관광지 등 유용한 지역 정보
-맛집

WEST 기숙사 주변은 주거 지역이라 식당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맛집 하나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Mai Mai Restaurant라는 베트남 음식점인데, 체코에서 웬 베트남 음식점이나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프라하에는 베트남타운도 있고 길거리에도 베트남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 음식에 질릴 때 베트남음식점 적극 추천드립니다. 체코 음식으로는 Porks, 우핀카스, 칸티냐 등이 맛있습니다. 또 맥주로 유명한 체코에서 최고의 흑맥주는 코젤직영점 Kozlovna에서 마시는 코젤다크입니다.

-쇼핑

WEST에 사신다면 트램이나 버스로 한 정거장 가거나 도보로도 가까운 albert, bila에서 장을 보시거나 ISIC 학생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esco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실 겁니다. 가장 가까운 tesco는 Andel역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매장으로 저는 매주 이곳에서 할인쿠폰을 활용해 장을 봤습니다. 급할 때는 기숙사 로비 층에 위치한 미니마켓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가 더 저렴하지만 차이가 크진 않아 작게작게 필요한 것을 구매할 때는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옷 쇼핑은 zlicin역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서 주로 해결했습니다.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주요 브랜드는 모두 모여있어 쇼핑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혹은 palladium(시내 근처 대형 쇼핑몰)이나 바츨라프 광장의 쇼핑 거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지

프라하 내 관광은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할 정도로 모여있습니다. 프라하성, 까를교, 천문시계가 위치한 구시가지, 화약탑 등등 관광 난이도가 낮으니 도착하시고 직후에 둘러보시면서 체코 프라하에 왔음을 실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프라하의 장소들은 리에그로비 사디, 비세흐라드, 라드론카 공원, 까를교 근처.. 정말 많습니다. 리에그로

비 사디에서 보는 프라하성을 정면에 둔 일몰과 야경, 비세흐라드에서 프라하 시내 조금 멀리서 내려다보는 듯한 일몰과 야경, 라드론카 공원에서 아침이고 해질녘이고 밤이고 뛰던 러닝, 목적지 없이 이곳저곳 걷기만 해도 좋은 까를교 근처 등등 메인 관광지 외에도 아름다운 공간들이 너무나 많은 프라하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프라하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근교 도시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 중세도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체스키크룸로프, 유명 양조장 투어가 있는 필젠은 프라하 교환학생이라면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 생활비와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기숙사 종류와 월별/학기별 비용

교외기숙사인 WEST 기숙사는 월세 개념으로 보증금 26,550코루나(한화 약 170만원)에 한 달에 8,850코루나(한화 약 57만원)입니다. 사실 처음 제가 기숙사를 선택할 때엔 8,850코루나라면 한화로 약 52만원 정도 생각하면 됐었는데 계엄령과 탄핵, 트럼프 정책 등등...의 이슈들로 가슴 아픈 환율 이슈가 교환 내내 함께하고 있습니다ㅎ

교내기숙사인 JIH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꽤나 유의미한 차이로 이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WEST 기숙사에 안내 받은 내용으로는 2025년 10월부터 월세 인상이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 식비, 교통비, 여행비, 기타 개인 지출 등

식비는 직접 요리를 하느냐 외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프라하에 있는 동안에는 주로 장을 봐서 해먹었는데 1-2주치 장을 봐도 평균 3만원 대의 금액 정도가 나옵니다. 외식은 유럽 물가에 비하면 싼 편이나, 체감상 한국과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프라하 내에서 학생 pass를 이용하실 텐데 1개월권에 130코루나(약 8천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도 있는데 1개월씩 세 번 끊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면에서만 생각하면 제 경우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훨씬 컸는데 여행 비용이 컸습니다.

여행비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또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교환학생으로서 여행을 다니면 호스텔로 숙박을 잡으실 텐데 유럽 평균 1박에 5만원 정도(국가마다 천차만별)로, 교통은 라이언에어 등 저가 항공으로 비행기 싸게 구하면 보통 편도 5-8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6개월간의 여행 예산을 미리 잡기란 쉽지가 않아서 교환 초반에 여행 다녀보시면서 아 내가 몇 박 여행에 이 정도 금액을 쓰는구나, 하시고 예산에 맞게 잘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은, 생활비와 여행 경비를 분리해 기록하며 관리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아예 가계부 앱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생활비 기록은 '편한가계부' 앱을, 여행 경비 기록은 '트라비포켓' 추천드립니다. 두 앱 모두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여러 통화로도 기록 가능하며 '트라비포켓'은 여행 별로 항목을 만들어 기록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6. 자기평가 (분량: 1~2장)

- 교환학생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은 점, 성장한 부분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혼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력과 책임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행정 절차, 낯선 시스템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직접 해결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겼습니다. 물리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판단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발표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분위기, 모임에서의 약속 시간 개념이나 대화 방식 등은 한국과는 조금 달라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러한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 역시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왜 필요했는지

일상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늘 있었습니다. 늘 익숙한 방식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좀 더 정확히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제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하는 면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또한 단기 여행이 아닌 비교적 긴 시간 한 곳에 머물며 생활해보니,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밀도 있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지인의 삶을 조금은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한국과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점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방법

교환학생 생활이 전체적으로 즐겁고 의미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중간중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낯섦이나 개인의 소비에 대한 고민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너무 예의를 차린 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건가?'처럼 사소한 부분에서 망설이게 되기도 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이 흘러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애매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생활비나 여행비 등 다양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중간에 문득 지금 내가 이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값어치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생활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이후에는 더 고민해서 활동을 선택하게 되었고, 작은 일도 쉽게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즈음,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가끔은 괴로움 속에서도 저는 저를 잘 챙겼습니다. 완벽한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낯설고 불편했던 경험들 덕분에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이 시간에서 배운 것들이 제 안에 깊이 남아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